DEGURR MARKET CLOSE · 데구르르의 마감시황

2026.09.03 (목) 장마감 | 0903 | 3주체 전부 매도 · 자사주 단독 매수 재연 (거울상 3번째) | 장중 6,439.49 수직 낙하 — 6,547 붕괴 · 더블 바텀 +30.7p 방어 | 코스닥 800 붕괴 — 한 달 만

반등 조건 셋을 들고 출발해 6,439까지 밀렸다 돌아왔다 — +0.26%의 평온은 자사주의 것, 수급은 전부 매도였다

간밤 미장 반등, 금리 진정, 브로드컴의 "내년 AI 반도체 1,150억달러" — 아침의 한국 시장엔 반등할 이유가 셋이나 있었고 실제로 6,650에서 출발해 6,682.97까지 올랐다(6,700에 17p 미달). 그런데 오후 2시 전후 금융투자·연기금 매도가 지수를 6,439.49까지 끌어내렸다: 고점에서 243.5p 수직 낙하. 어제 지켰던 8/31 저점 6,547.76은 하루 만에 깨졌고, 대신 8월의 더블 바텀(6,400.81·6,408.82)이 최후 방어선으로 작동했다. 종가 +0.26%를 만든 손은 이번에도 자사주뿐 — 개인·외인·기관이 모두 팔았고(−1조5,900억) 기타법인 +1조5,936억이 그대로 받았다. 8/31·9/1의 거울상이 세 번째로 재연됐고, 그 안에서 반도체·바이오를 팔아 금융·보험·조선·2차전지로 옮기는 '새 돈 없는 순환매'가 돌았다. 코스닥은 그 순환매 밖으로 밀려나 한 달 만에 800선을 내줬다.

ⓒ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똥밭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
코스피
6,579.48
▲16.76 (+0.26%) · 저점 6,439.49 · 대금 22.17조

코스닥
790.21
▼13.77 (−1.71%) · 종가 800 하회 — 8/7 이후 한 달 만

수급 구조 · 당일 핵심
−1조5,900 ↔ +1조5,936
3주체 전부 매도 ↔ 자사주 — 거울상 3번째

기타법인
+1조5,936억
11일 연속 · 누적 +16.64조 (55조의 30%)

원/달러 · 미 10Y
1,359원대
원화 강세 · 10Y 4.81→4.78% 진정

※ **소급 확정 반영:** 거래대금 엑셀 수신 — 대금(코스피 22.17조·코스닥 4.93조·합산 27.09조)·OHLC(H 6,682.97 / L 6,439.49)·판정 ⑤(21조 🟢) 확정 교체, 정정 2건(오전 "6,700선 시도"→고점 6,682.97 / 저점 "6,430선"→6,439.49 = 더블 바텀 +30.67p). 미수신: 수급 브리핑 마감판(비차익·[0785]·미결제)·예탁금·[0797]·전일 급등 장비 4종(디아이·아스플로·엑시콘·와이씨) 당일 등락 미수신. 지수 종가·주체별 수급·breadth는 장마감 확정치.

MONEY FLOW · 나의 중심은 항상 돈의 흐름

거울상 3번째 —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이 반도체·바이오를 떠나 금융·조선으로 이사했다

8/31 −1조5,777↔+1조5,773 · 9/1 −1조6,605↔+1조6,657 · 오늘 **−1조5,900↔+1조5,936**(36억 차). 어제 +2.3조를 받았던 개인이 하루 만에 −9,551억으로 돌아섰고, 외인·기관은 매도 규모를 줄이는 대신 보유 종목을 갈아탔다 — 하이닉스·삼전·알테오젠을 팔아 금융·보험·조선·자동차·2차전지를 샀다. 시장에 새로 들어온 돈이 없는 상태의 순환매: 지수는 제자리, 업종만 회전, 코스닥은 회전 밖.

① 외국인 −4,196억
매도 축소 · 어제 판 자동차를 오늘 되삼
매수: 삼성중공업·한화오션·기아·현대모비스·현대차
어제 시총순으로 던졌던 현대차·모비스를 하루 만에 저가 매수 — "8월 판매 부진은 파업발 일회성"이라는 결론을 시장이 하루 만에 냈다. 매도는 하이닉스·삼전·알테오젠. 코스닥은 −1,095억으로 어제 첫 순매수(+629)를 하루 만에 반납

② 기관 −2,153억
장중 6,439를 만든 손 · 마감엔 축소
매수: KB금융·삼성화재·DB손보·신한지주·삼성중공업·LG엔솔·LG화학
오후 2시 전후 금투·연기금 매도가 −200p 수직 낙하를 만들었지만 마감 집계는 금투 −1,015·연기금 −444에 그침 — 장중에 던진 것을 되샀다는 뜻. 매수 목록은 금융·보험(이익 가시성)과 어제 급락한 2차전지(저가 매수)

③ 개인 −9,551억 · 자사주 +1조5,936억
개인 하루 만 매도 전환 · 11일째 기계 매수
받는 손은 다시 자사주 하나
어제 +2.3조로 받았던 개인이 반등 출발을 이용해 차익·손절 — "받는 손"이 하루짜리였다. 자사주 누적 +16.64조(55조의 30%). 코스닥 개인 +2,952억 4일째 — 받고 또 빠짐(−1.71%)

돈이 들어간 곳 ▲ (어제 밀린 곳들)

- **조선** — 삼성중공업 +8.58% · 한화오션 +5.49%(양밍해운 1조5,527억 6척 수주 확정) — 어제 −7% 급락을 실제 수주 숫자로 하루 만에 되돌림
- **보험·금융** — 삼성화재 +6.85%(캐노피우스 완전자회사 추진) · DB손보 +6.34% · KB금융 +5.20% · 신한지주 +3.62%(캐피털그룹 5.02% 3대 주주)
- **2차전지·화학** — LG화학 +6.69% · LG엔솔 +5.18% · 포스코퓨처엠 +4.43% · POSCO홀딩스 +3.64% (기관 저가 매수 — 업황 신호 아님)
- **전력 생산** — 한국전력 +3.84%(삼전·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25조 선납 제안) · 두산에너빌 +3.39%
- **자동차** — 기아 +2.41% · 현대모비스 +1.93% · 현대차 +1.46% (외인 저가 매수 — "일회성" 확인)

돈이 빠진 곳 ▼ (순환매의 반대편)

- **반도체 투톱** — 하이닉스 −1.05%(전 주체 순매도 상위) · 삼전 −0.20% — 엔비디아 +3.2%에도 사흘째 온기 차단, 오전 상승분 반납이 지수 상단을 막음
- **반도체 부품·장비** — 대덕전자 −6.70% · 심텍 −4.78% · 주성엔지니어링 −3.28% (대형주 급락 후폭풍 — 이오테크닉스 +3.98%만 차별화)
- **바이오** — 펩트론 −6.92% · 알테오젠 −5.19% — 4.4조 계약의 선반영 매물이 이틀째 본격 출회, 코스닥 하락 주범
- **전력 기기** — LS ELECTRIC −1.84% · 효성중공업 −1.45% · HD현대일렉 −0.70% — 생산자(한전)와 기자재의 희비 교차

SECTION 00

전일 대비 —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나

🟢 좋아진 것

- **브로드컴 통과 (마벨 패턴 회피)** 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소폭 아쉬웠으나 "내년 AI 반도체 매출 1,150억弗" 제시로 AI 수요 우려 완화 · 미장 반등(S&P +0.48%·러셀 +1.23%)
- **금리 진정** — 미 10Y 4.81→4.78%대 · 국고 3년 3.89%·10년 4.36% 하락 · ADP 부진으로 인상 기대 소폭 후퇴
- **원화 강세 가속** — 1,359원대: 금리 진정 + 엔 강세 + 수출업체 네고 3박자
- **더블 바텀 방어** — 6,439.49에서 급반등(6,408.82의 +30.67p 위): 8월의 최후 방어선(6,400.81·6,408.82)은 살아 있다
- **수주의 실물 확인** — 한화오션 1조5,527억(이틀새 2조305억) · 한전 25조 선납 구상 — 어제 금리에 밀렸던 조선·전력이 숫자로 복원
- **자동차 "일회성" 하루 만 확인** — 외인이 어제 판 현대차·모비스를 오늘 되삼
- **중국 서비스업 PMI 51.4** — 예상(50.6)·전월(50.4) 상회: 화학·철강에 우호

🔴 나빠진 것

- **6,547.76 하루 만에 붕괴** — 어제 "마지막 보루"로 세운 8/31 저점이 오후 수직 낙하에 깨짐. 저점 높이기 구조 종료
- **3주체 전부 매도 복귀** — 개인까지 −9,551억: 어제의 +2.3조가 하루짜리 받침이었음이 확인. 자사주 단독 매수 재연(거울상 3번째)
- **코스닥 800 붕괴** — 종가 790.21, 8/7 이후 한 달 만: 순환매가 대형주 안에서만 돌고 코스닥엔 오지 않았다. 외인 재매도(−1,095) · 하락 1,109개
- **반등 조건 셋을 받고도 못 오른 반도체** — 엔비디아 +3.2%·브로드컴 통과에도 투톱 하락, 사흘째 온기 차단: 하이닉스는 전 주체 순매도 상위
- **재료 역행의 후폭풍 확인** — 알테오젠 −5.19%: "계약은 좋지만 기대가 이미 가격에" — 확실성 법칙의 6번째 표본
- **부품·장비 낙폭 확대** — 대덕 −6.70%·심텍 −4.78%: 어제 장비 역행의 확산 실패
- **WTI 90 위 고착** — 90.53弗: 트럼프 "오래 안 간다" 선긋기에도 공급 우려 잔존

한 줄 판정: 리포트 제목 그대로 "지수보다 솔직했던 수급"의 하루다. +0.26%는 자사주가 쓴 숫자이고, 진짜 시장은 오후 2시의 −200p와 3주체 동반 매도, 코스닥 800 붕괴에 있다. 다만 최악은 아니었다 — 더블 바텀이 확인됐고, 금리·브로드컴·환율은 모두 반등 쪽으로 정렬됐다. 남은 질문은 하나: 내일 밤 고용보고서가 인상 확률 68%를 꺾어줄 때, 외인·기관이 실제로 순매수로 돌아오는가.

📋 **전일(9/2) 관전 포인트 판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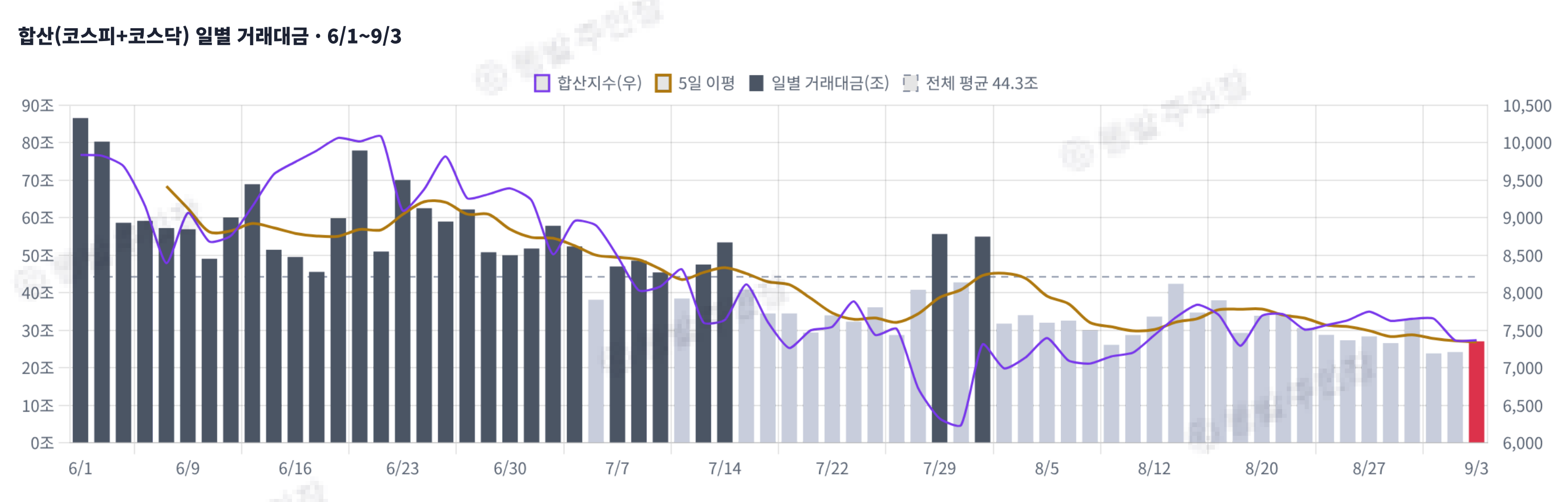
① 6,547.76 공방 — 붕괴 🔴 오후 수직 낙하로 하루 만에 깨짐 → 6,500도 하회 → **6,439.49에서 반등(확정): 더블 바텀 6,408.82의 +30.67p 위,** 저점 계보는 "높이기"에서 "더블 바텀 사수"로 격하
② 금투 −1.43조 재유입 — 왕복 🟡 장중 금투·연기금 매도가 6,439.49를 만들고 마감엔 금투 −1,015·연기금 −444로 축소 = 장중에 팔고 되삼. 완전 재유입은 아니고 '이탈 중단' 수준
③ 브로드컴 채점 — 통과 🟢 가이던스 소폭 미달에도 내년 AI 매출 1,150억弗 제시 → 마벨 패턴 회피, 미장 반등. **단 국내 투톱은 미반영(사흘째)** — "통과했는데 못 받는" 국내 수급 문제로 판정 이관
④ 유가·금리 — 절반 완화 🟡 10Y 4.78%대·국고 하락·ADP 부진 / WTI 90.53 위 고착·일본 3% 지속
⑤ 반등 시 대금 21조 — 충족 🟢 소급 코스피 22.17조(+18.0%) — 단 −243.5p 왕복이 낀 '왕복 대금'이라 절반 인정, 다음 상승일 재검증. 5일 이평 21.86 아직 하락
⑥ 후공정 장비 익일 검증 — 확산 실패 🔴 부품·장비 전반 급락(대덕 −6.70·심텍 −4.78·주성 −3.28), 어제 급등 4종 개별 등락은 미수신(이오테크닉스 +3.98%만 확인) — 대형 고객사 흔들리면 실적 무관 동반 매도되는 얇은 수급 재확인
⑦ 코스닥 외인 이틀째 — 반납 🔴 +629 → −1,095: 첫 전환은 하루짜리
⑧ 재료 역행 6건 재평가 — 역방향 🔴 알테오젠 −5.19% 매물 본격화 — "재평가 후보"가 아니라 "선반영 청산"이 먼저 왔다. 확실성 법칙 6번째 표본. 삼성전기 등 나머지 5건 등락 미수신
⑨ [이월] 수급 마감판·[2781]·[0785]·예탁금·[0797]·현대차 소각 공시 ⚪

SECTION 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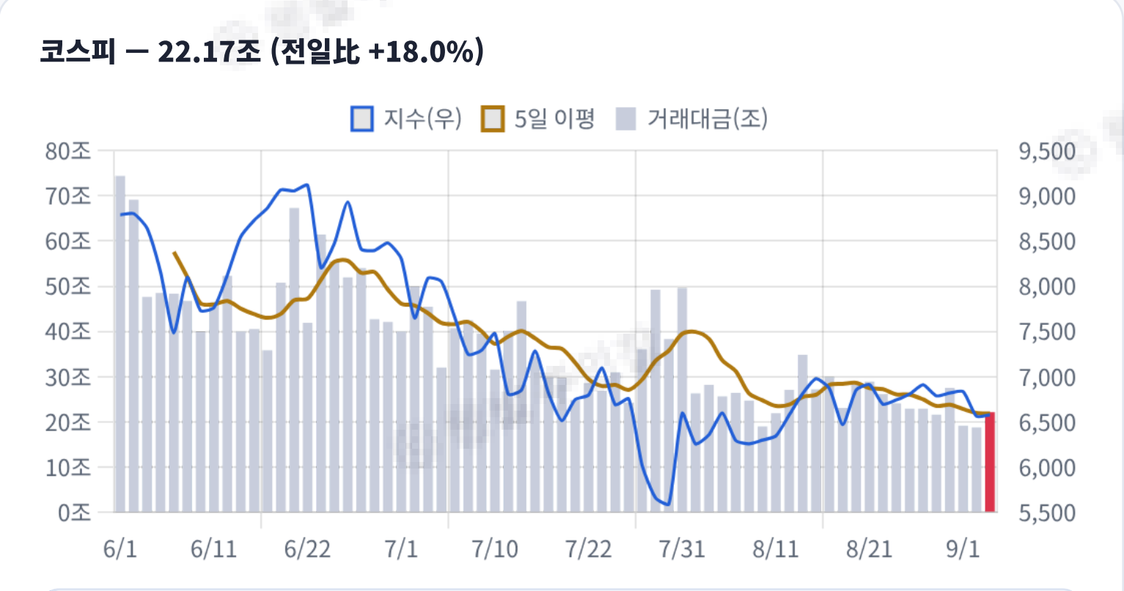
거래대금 — 소급 확정: 21조 판정선은 넘었다, 단 '왕복 대금'

소급 확정 **코스피 22.17조(+18.0%) — 판정 ⑤ "반등 시 21조 동반" 🟢 충족.** 이틀 연속 20조 미만(19.20 → 18.78조) 행진이 끝났고 구간 최저 갱신도 멈췄다(합산 최저는 9/1 23.86조 유지). 다만 단서 하나 — 이 대금엔 오후 −243.5p 수직 왕복이 끼어 있다. 순수한 매수 회복이 아니라 **한 주체가 팔고 되사며 부풀린 '왕복 대금'** 성격이라, 매수 실종 해소의 물증으로는 절반만 인정하고 다음 상승일 대금에서 재검증한다. 5일 이평 22.02→21.86조로 아직 하락 중이라는 점도 같은 방향의 단서.

합산(코스피+코스닥) 일별 거래대금 · 6/1~9/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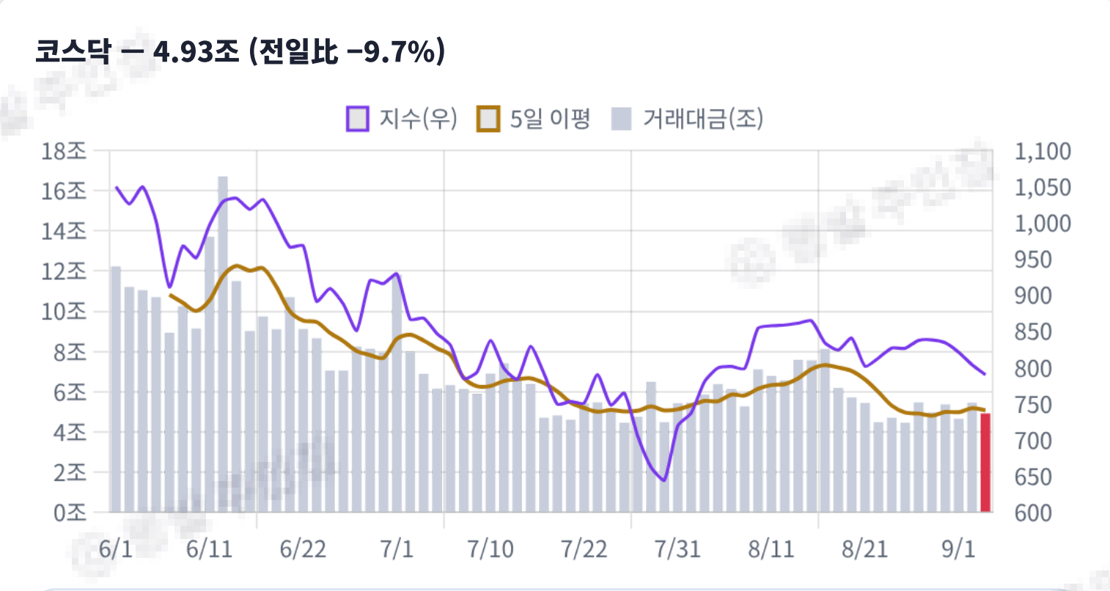


코스피 — 22.17조 (전일比 +18.0%)



21조 판정선 회복 — 그러나 +18%의 상당분은 오후 2시 왕복(고점比 −243.5p 낙하 후 +140p 복원)이 만든 회전. 8월 평균 25.8조엔 여전히 미달. 다음 판정선: **왕복 없는 상승일에 21조 이상**이 나오는지.

코스닥 — 4.93조 (전일比 −9.7%)



800 붕괴일에 대금이 오히려 줄었다(비중 22.5→18.2%) — 투매가 아니라 회피형 하락(8/28형). 어제 코스피 급락 회피처로 늘었던 자금이 하루 만에 빠져나간 모양새로, 개인 4일째 매수(+2,952억)만 남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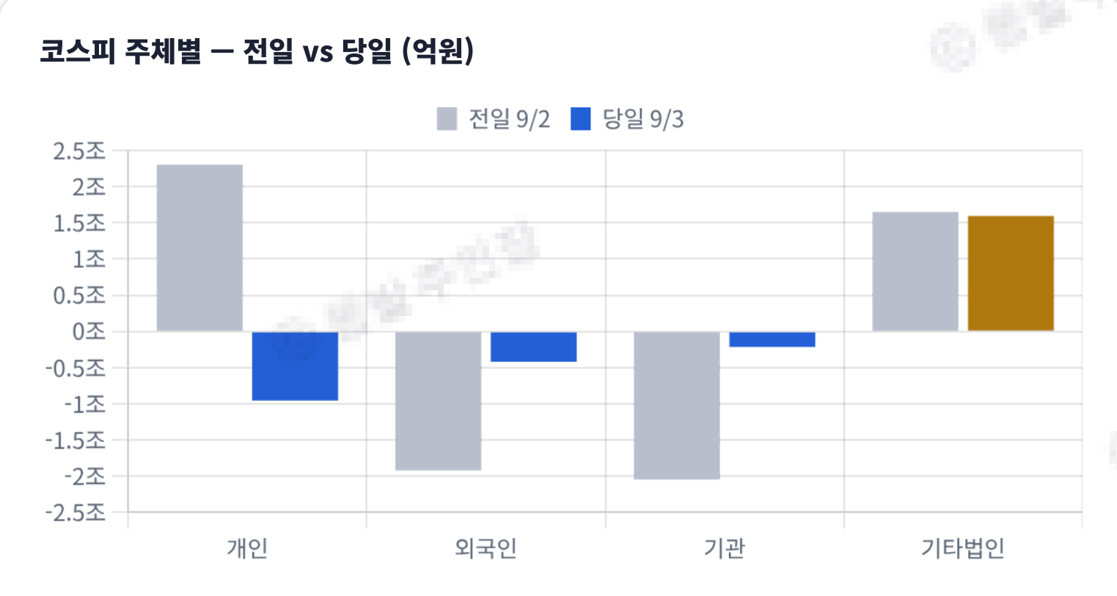
구간	합산 평균	코스피	코스닥	코스닥 비중
6월 / 7월 / 8월	60.4 / 43.0 / 31.8조	50.3 / 36.9 / 25.8조	10.0 / 6.1 / 6.0조	16.6 / 14.2 / 18.9%
9/1	23.86조 (기간 최저)	19.20조	4.66조	19.5%
9/2	24.23조	18.78조 (구간 최저)	5.46조	22.5%
9/3 (당일)	**27.09조** +11.8%	**22.17조** +18.0% · 21조 회복	**4.93조** −9.7%	**18.2%**

전체 평균 44.3조 · 5일 이평: 코스피 22.02→21.86조(↓) / 코스닥 5.19→5.08조(↓) — 판정 기준(코스피 5일 이평 우상향) 미충족 지속. 기간 최저: 합산 9/1 23.86조 · 코스피 9/2 18.78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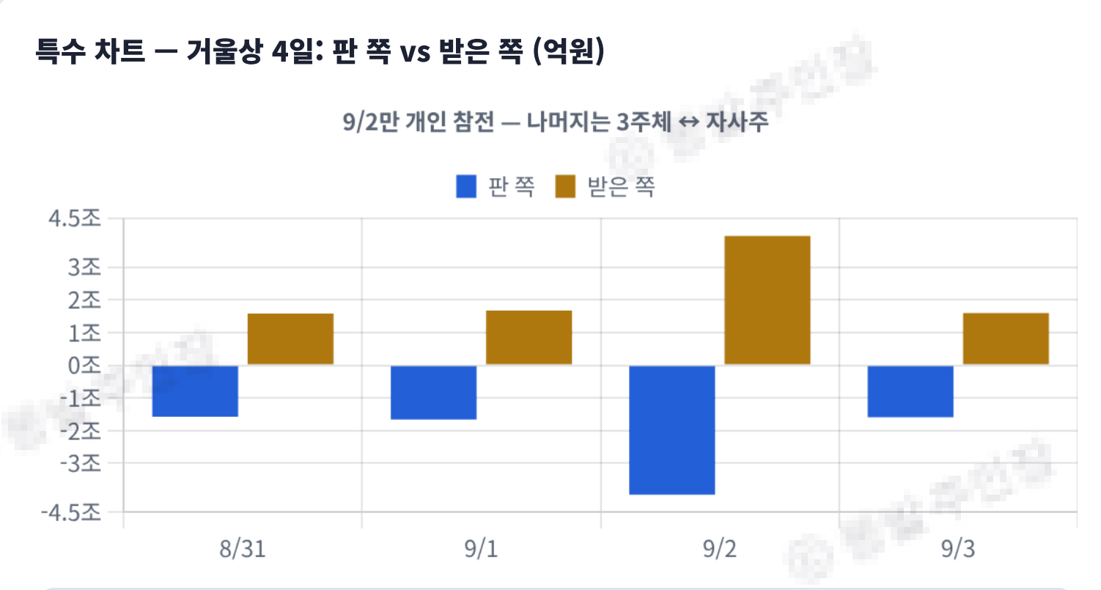
SECTION 02

수급 — 거울상 3번째, 그리고 새 돈 없는 순환매

코스피 주체별 — 전일 vs 당일 (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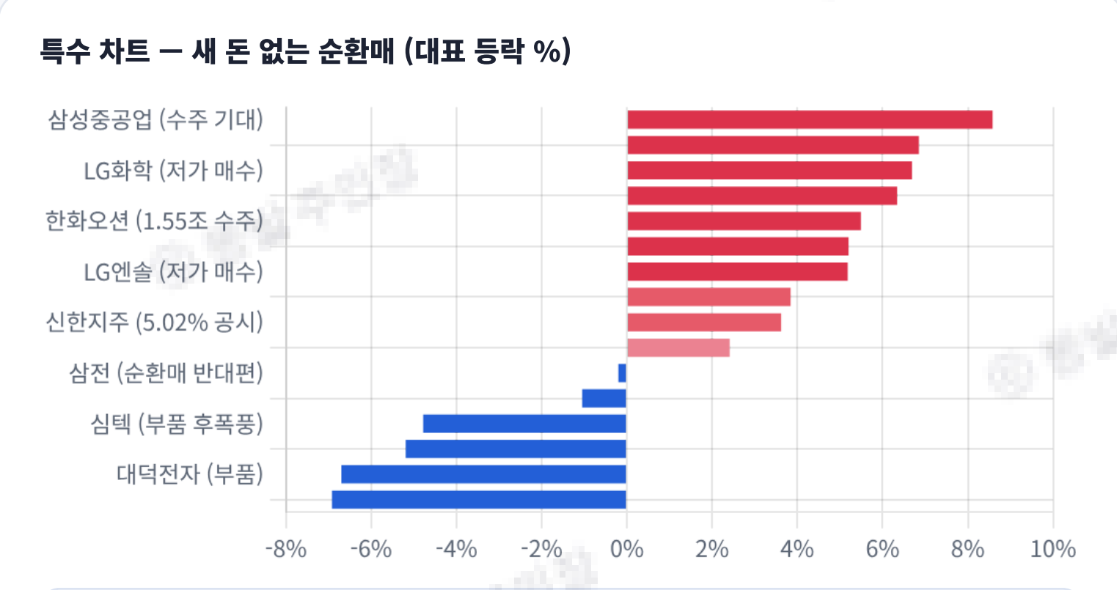
특수 차트 — 거울상 4일: 판 쪽 vs 받은 쪽 (억원)



8/31 4억 차 · 9/1 52억 차 · 9/2는 개인이 받는 쪽으로 이동(−3.96조↔+3.95조) · **오늘 다시 3주체↔자사주 구조로 복귀, 36억 차.** 능동 주체가 판 만큼을 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받는 구조가 3주 차에 들어섰다.

구분	전일 (9/2)	당일 (9/3)	변화
코스피 개인	+23,024	−9,551	하루 만 매도 전환 반등 출발을 이용한 차익·손절 — "받는 손"은 하루짜리
코스피 외국인	−19,196	−4,196	매도 축소 10일 중 9일 매도 — 단 자동차·조선은 되삼(순환매)
코스피 기관	−20,433	−2,153	매도 축소 장중 대량 매도 후 되매수 — 금투 −1,015·연기금 −444·투신 −1,153
코스피 기타법인	+16,505	**+15,936**	11일 연속 누적 **+16.64조** (55조의 30%) · 3일 만에 다시 유일 매수
코스닥 개인	+1,727	+2,952	4일째 매수 받고 또 빠짐 — 법칙 4일째
코스닥 외국인	+629	−1,095	하루 만 반납 첫 전환은 하루짜리 — 바이오·PCB·고밸류 매도
코스닥 기관	−2,320	−1,846	지속 금투 −1,006·사모 −490·연기금 −2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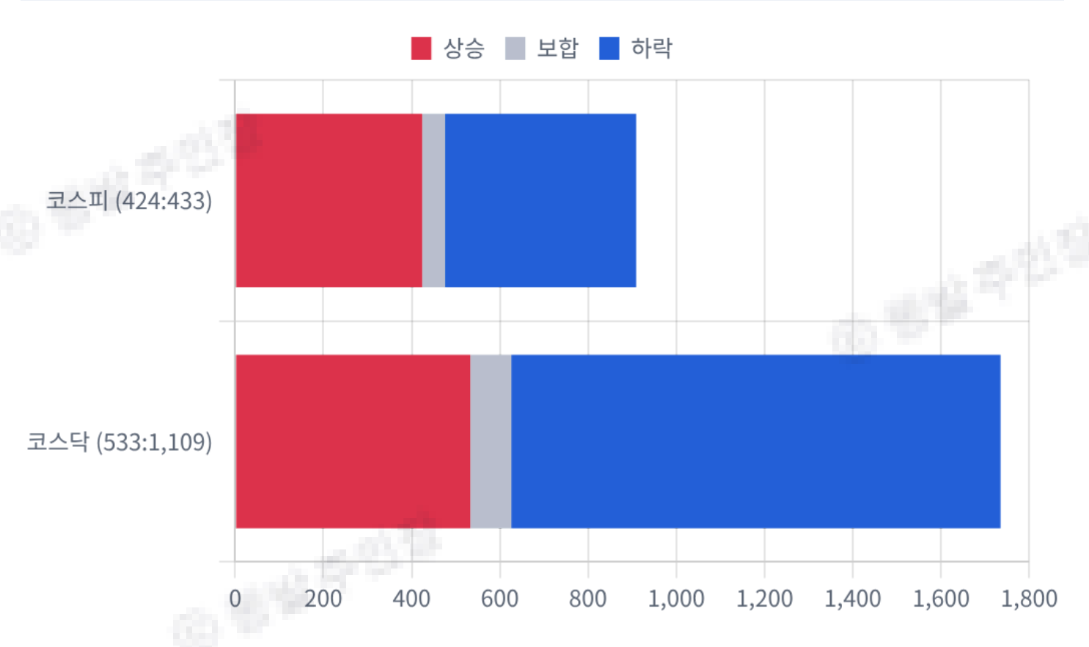
특수 차트 — 새 돈 없는 순환매 (대표 등락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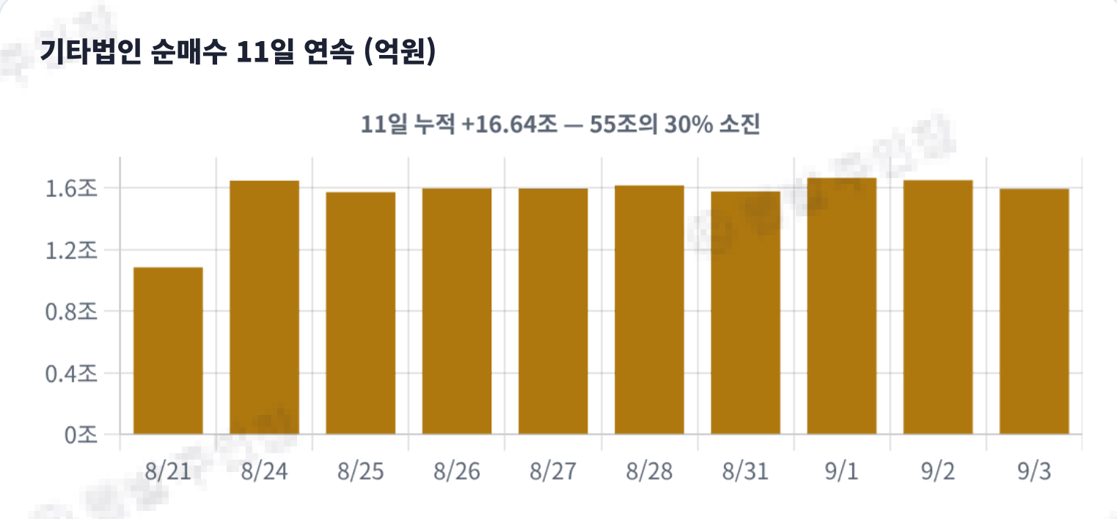
판 것과 산 것의 목록이 곧 오늘의 지도. 외인·기관이 함께 판 것: 하이닉스·삼전·알테오젠(반도체·바이오). 산 것: 외인은 조선·자동차, 기관은 금융·보험·2차전지. 이유도 명확하다 — 다음 분기 이익을 가늠하기가 반도체·바이오보다 쉬운 곳(금융), 실제 수주 숫자가 찍힌 곳(조선), 일회성이 확인된 곳(자동차), 어제 과하게 빠진 곳(2차전지)으로 옮겼다. 불확실성 회피형 순환매.

기관별 상세 (억원, 확정) · breadth

주체	코스피	코스닥
금융투자	−1,015	−1,006
투신 / 보험	−1,153 / +202	−96 / −21
연기금등 / 은행	−444 / +19	−218 / −9
기타금융 / 사모	+163 / +77	−5 / −490
기타법인	**+15,936**	−29



기타법인 순매수 11일 연속 (억원)



해석 — 오후 2시의 정체

장중 6,439.49를 만든 손과 마감 숫자의 간극. 낙하의 주범은 금투·연기금 매도(리포트·확인)인데 마감 집계는 금투 −1,015·연기금 −444에 불과하다 — 장중에 대량으로 던졌다가 저가에서 되샀다는 뜻이다. 만기(9/10) 전 포지션 정리가 지수를 흔들고 스스로 줍는 왕복 매매: 대금이 얇은 시장에서 기관 한 주체의 왕복이 −200p를 만들 수 있음이 확인됐다. **만기 주간까지 이 유형의 순간 변동성은 반복될 수 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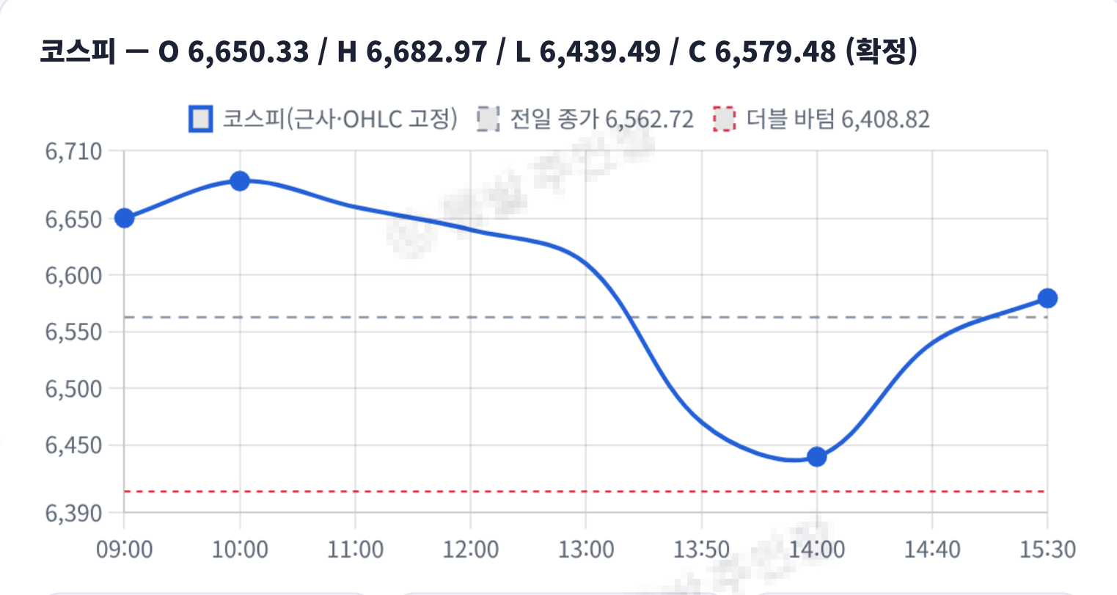
파생 (차트 판독 근사): 외인 선물 누적은 이틀 급감 후 소폭 회복 조짐, **풋 누적 ≈+420억으로 재확대 지속**(기관 −310) — 하방 보험은 만기 직전까지 계속 채우는 중. VKOSPI ≈42.5로 사이클 최저권 재진입: 장중 −200p에도 옵션 시장은 여전히 냉정.

SECTION 03

장중 궤적 — 200p 수직 낙하와 V자 복원 (근사)

갭 분해(근사): 코스피 +16.76p = **갭 +87.61p(시가 6,650.33) + 장중 −70.85p** — 반등 조건 셋이 만든 갭을 국내 수급이 도로 깎았다. 오전 고점 6,682.97 → 오후 2시 전후 저점 6,439.49(고점比 −243.5p 낙하, 전일 종가 대비 −2%대) → 급복원 6,579.48. **6,547.76 붕괴 · 6,500 붕괴 · 더블 바텀(6,408.82) 위 방어**가 오늘 장중에 모두 일어났다. 코스닥은 오전 815선까지 반등 후 동반 급락, 783선 저점 찍고 790.21 — 800선을 종가로 하회(한 달 만). ※ OHLC 확정치는 엑셀 소급 대기, 궤적은 5분 차트 판독 근사.

코스피 — O 6,650.33 / H 6,682.97 / L 6,439.49 / C 6,579.48 (확정)



09:00~11:00
6,650.33 → 6,682.97 고점
미장 반등·금리 진정·브로드컴 통과의 3박자 갭업 출발

~14:00
6,439.49 저점
금투·연기금 매도 — 고점 대비 −243.5p, 6,547·6,500 연쇄 붕괴

14:00~15:30
6,439.49 → 6,579.48
+140p 급회복 — 단 투톱이 상승분을 반납하며 상단 제한

저점 계보 — "높이기"에서 "더블 바텀 사수"로

일자	저점	비고
8/19 · 8/25	6,400.81 · 6,408.82	더블 바텀 — 최후 방어선
8/31	6,547.76	V자 저점 → 9/3 붕괴
9/1	6,732.47	4단째 → 9/2 반납
9/2	6,558.30	6,547 방어 → 하루 만 무효
9/3	**6,439.49 (확정)**	**더블 바텀 +30.67p 위에서 반등** — 8월 저점 구조의 최종 시험 근접

지난 이틀 "저점 높이기의 마지막 보루"라 썼던 6,547.76이 깨졌으므로 이제 기준은 하나로 줄었다: **6,408.82(8/25)·6,400.81(8/19) 더블 바텀.** 오늘 6,439.49 반등은 그 +30.67p 위(확정) — 여기가 깨지면 8월 랠리 이전 레벨(6,3xx·6,080)의 영역이다.

SECTION 04

섹터 인과 지도 — 오늘의 동인 3개

총평: 동인은 셋 — **①밖의 완화(미장·금리·브로드컴)**이 갭업을 만들었고, **②기관 수급(장중 왕복 + 금융·조선行 순환매)**이 장중 방향을 정했고, **③수주·계약의 실물(한화오션 1.55조·한전 25조·삼성화재 캐노피우스)**이 오른 업종을 골랐다. 오늘 시장은 재료가 아니라 "다음 분기 이익이 보이느냐"로 업종을 골랐다 — 금융이 1등인 이유.

DRIVER 01 · 🟢 실물 수주
조선·전력 — 어제의 낙폭을 숫자로 되돌리다

- 한화오션: 양밍해운 1만3,650TEU LNG 이중연료 컨선 6척 = **1조5,527억**(매출의 12.1%, 2029년 하반기 인도, 이틀새 2조305억·연간 70.7억弗)
- 삼성중공업 +8.58% — 대형 컨선 수주·선가 상승 기대 확산
- 한국전력 +3.84% — 삼전 20조·하이닉스 5조 **전기요금 5년치 25조 선납 제안**(용인·호남 클러스터 전력망 재원, 이자는 국고 2Y+α 협상)

→ 삼성중공업 +8.58% · 한화오션 +5.49% · 한전 +3.84% · 두산에너빌 +3.39% / 기자재는 차익(LS일렉 −1.84%)

DRIVER 02 · 🟢 이익 가시성
금융·보험으로의 기관 이사

- 금리 높은 국면 = 예대마진 확대 + 다음 분기 이익 계산이 반도체·바이오보다 쉬움
- 삼성화재: 영국 특수보험사 캐노피우스 잔여 지분(약 60%) 인수 협상 — 완전자회사 추진, 해외 성장 스토리
- 신한지주: 캐피털그룹 지분 5.02% 확대 공시 — 국민연금·블랙록 이어 3대 주주. KB·하나를 줄이며 신한을 담은 '업종 내 갈아타기' = 주주환원 평가

→ 삼성화재 +6.85% · DB손보 +6.34% · KB금융 +5.20% · 신한지주 +3.62% — 기관 주도(외인은 일부 차익)

DRIVER 03 · 🔴 순환매의 반대편
반도체·바이오 — 판 돈의 출처

- 투톱: 엔비디아 +3.2%·브로드컴 통과에도 상승분 반납 — 하이닉스는 전 주체 순매도 상위, 사흘째 온기 차단
- 부품·장비: 대형 고객사 급락 후폭풍으로 실적 무관 동반 매도(수급 얇음) — 어제 역행의 확산 실패
- 바이오: 알테오젠 4.4조 계약의 선반영 매물 이틀째 — 확실성 법칙 6번째 표본, 코스닥 하락 주범

→ 하이닉스 −1.05% · 대덕전자 −6.70% · 심텍 −4.78% · 알테오젠 −5.19% · 펩트론 −6.92% → 코스닥 800 붕괴

SECTION 06

두각 종목 — 최근 2일 내 개별 뉴스

코스피
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체
삼성중공업	+8.58%	9/3 대형 컨선 수주·선가 상승 기대 — 외인·기관 동시 매수
삼성화재	+6.85%	9/3 캐노피우스 잔여 지분(약 60%) 인수 협상 — 완전자회사·해외 특수보험 확장
DB손해보험	+6.34%	동반 보험업 해외 성장 기대 확산
한화오션	+5.49%	9/3 양밍해운 6척 1조5,527억 수주 확정 — 어제 −6.71%를 숫자로 복원
KB금융 · 신한지주	+5.20 / +3.62%	9/2~3 기관 이사 + 신한: 캐피털그룹 5.02% 3대 주주 공시
한국전력	+3.84%	9/3 삼전·하이닉스 전기요금 25조 선납 제안 — 재무구조 개선 기대
SK하이닉스	−1.05%	9/3 개인·외인·기관 모두 순매도 상위 — 자사주가 낙폭만 방어

코스닥
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체
이오테크닉스	+3.98%	9/3 개별 장비 수요 기대 + 저가 매수 — 부품 급락 속 차별화
알테오젠	−5.19%	9/2~3 4.4조 계약 선반영 매물 이틀째 본격 출회 — 외인·기관 동반 매도
펩트론	−6.92%	직접 뉴스 없음 바이오 투심 위축 동반
디아이·아스플로·엑시콘·와이씨	미수신	어제 역행 급등 4종의 당일 등락 자료 미수신 — 과속 검증 이월

알테오젠이 완성한 확실성 법칙 6번째 표본. "발표를 기다리며 미리 산 물량이 발표 후 나온다" — 4.4조라는 크기도 선반영 앞에선 무력했다. 8월 내내 본 패턴(삼전 110조·현대차 인베스터데이·수출 사상 최대)의 바이오판. 대형 이벤트는 **발표 전 주가가 이미 답**이다.

SECTION 08

매크로 · 원자재

원/달러
1,359원대
오후 들어 **원화 강세 가속** — ①미 금리 진정 ②엔 강세(일본 3% 돌파의 반작용) ③수출업체 네고. 6거래일째 "외인 매도 ≠ 환전 이탈" 물증. 단 엔 강세는 엔캐리 되감기의 신호이기도 — 양날.

금리
美 4.78% ↓
미 10Y 4.81→4.77~4.78%대(ADP 부진), 국고 3년 3.89%·10년 4.36% 동반 하락 — 어제의 "단기물까지 상승" 경계가 하루 만에 완화. 일본 10Y 3% 위 지속 + **엔캐리 되감기**가 남은 경계: 일본 금리↑·엔↑이면 빌린 돈 갚는 비용이 커져 글로벌 자산에서 자금이 돌아간다 — 외인 수급의 다음 변수.

원자재
WTI $90.53
트럼프 "대이란 작전 오래 안 간다" 선긋기로 상승폭 제한 — 그러나 90 위 고착, 공급 우려 잔존. 금 **$4,424** 수요 지속.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51.4(예상 50.6·전월 50.4 상회) — 화학·철강 우호.

SECTION 09

핵심 쟁점 — 오늘의 본질 4가지

① 자사주 3주 차 — 완충재의 한계와 성과가 같은 날 확인됐다

어제는 4조 매도 앞에서 실패했고(−3.99%), 오늘은 매도가 1.6조로 줄자 지수를 지켰다(+0.26%). 자사주의 방어력은 상대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당연한 결론이 이틀로 증명된 것. 누적 16.64조 = 총량의 30%, 이 페이스면 잔여 24거래일 안팎. **확인: 외인·기관 순매수 전환 — 리포트도 "그것이 반등의 조건"으로 못박음.**

② 새 돈 없는 순환매 — 지수는 못 올리고 코스닥은 밀어낸다

반도체·바이오에서 뺀 돈이 금융·조선·자동차·2차전지로 옮겨갔을 뿐 총량은 매도 우위다. 이런 순환매는 대형주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소외된다 — 오늘 800 붕괴(한 달 만)가 그 결과. 기준은 "다음 분기 이익이 보이는가": 불확실성 회피형 장세의 전형. **확인: 순환매의 종착지가 금융인지, 반도체로 되돌아오는지.**

③ 브로드컴은 통과했는데 투톱은 사흘째 못 받는다

엔비디아 +3.2%, 브로드컴 내년 AI 1,150억弗, 미국 메모리주 강세 — 그런데 삼전·하이닉스는 상승분을 반납했다. AI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수급의 문제(외인·기관의 지수 축소 + CXMT 부담)라는 뜻. 자사주가 하단을 받치는 동안 해외 호재가 쌓이고 있다 — 이 간극은 언젠가 한쪽으로 해소된다. **확인: 외인 하이닉스·삼전 순매수 전환일.**

④ 오후 2시의 교훈 — 얇은 대금 위에선 한 주체의 왕복이 −200p를 만든다

금투·연기금의 장중 매도가 6,439.49를 만들고 마감엔 되샀다. 구간 최저 대금(직전 이틀 19.2·18.8조)이 이어진 시장에선 만기(9/10) 전 포지션 정리 한 번이 지수를 2% 흔든다. 다음 주 만기까지 이 유형의 순간 변동성은 상수로 두어야 한다. **확인: 왕복 없는 상승일의 대금 21조 + 만기일 수급.**

SECTION 10

주요 뉴스

수주 · 계약

- **한화오션** 양밍해운 LNG 이중연료 컨선 6척 1조5,527억(이틀새 2조305억, 연간 70.7억弗)
- **한국전력** 삼전 20조·하이닉스 5조 전기요금 5년치 선납 제안 — 용인·호남 전력망 재원, 이자 국고 2Y+α 협상
- **삼성화재** 캐노피우스 잔여 지분 인수 협상 — 완전자회사·해외 특수보험 확장
- **신한지주** 캐피털그룹 5.02% 3대 주주 — KB·하나 줄이며 신한 확대

매크로

- **브로드컴** 내년 AI 반도체 매출 1,150억弗 제시 — 가이던스 소폭 미달을 콜이 뒤집음, 마벨 패턴 회피
- **미 ADP 부진** → 10Y 4.78%대 진정, 국고채 동반 하락
- **트럼프** "대이란 작전 오래 안 간다" — WTI 상승폭 제한, 90 위 고착
- **중국 8월 서비스업 PMI 51.4** — 예상·전월 상회
- **일본 10Y 3% 위 + 엔 강세** — 엔캐리 되감기 경계 지속

확인 일정

- **오늘 밤** 미 ISM 서비스업
- **9/4(금) 밤 9:30 ★** 미 8월 고용보고서 — 예상 +58K (7월 −23K): 인상 확률 68%의 분수령이자 외인·기관 복귀의 트리거 후보
- **9/10(목)** 선물·옵션 동시 만기

SECTION 11

관전 포인트

가장 중요한 확인 지표 (다음 판 판정 기준):

① **고용보고서 채점 (9/4 밤 → 월요일 판)** — +58K 예상: 둔화 확인 시 인상 확률 68% 후퇴 → 금리 부담 해소, 상회 시 재긴축. 외인·기관 순매수 전환의 트리거 후보 1순위
② **더블 바텀 6,408.82 사수** — 오늘 6,439.49(+30.67p) 반등의 유효성. 재이탈 시 8월 랠리 이전 영역
③ **외인·기관 순매수 전환** — "자사주 이외 매수세"가 반등의 조건(리포트 명시). 3주체 매도 이틀째 여부
④ **순환매 방향** — 금융·조선 지속 vs 반도체 복귀 — 외인 하이닉스·삼전 전환일이 분기점
⑤ **코스닥 800 회복** — 순환매 밖 시장의 복귀 여부 · 개인 4일째 매수의 결말
⑥ **엔캐리 되감기** — 일본 3%·엔 강세의 외인 수급 전이 여부
⑦ **WTI 90 이탈 여부** — 트럼프 선긋기의 지속력 · 호르무즈 뉴스
⑧ **만기(9/10) 주간 변동성** — 오후 2시형 왕복 재발 경계 · 풋 +420억의 청산 방향
⑨ [이월] 수급 마감판·[0785]·예탁금·[0797]·장비 4종 등락·현대차 소각 공시 소급

ⓒ **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똥밭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**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본 콘텐츠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기준: 지수 종가·주체별 수급·breadth는 2026-09-03 장마감 확정치(FnGuide). 거래대금·OHLC는 엑셀 소급 확정(집계 구간 6/1~9/3) — 장중 궤적 곡선은 5분 차트 판독+공식 OHLC 고정점의 근사. 소급 정정 2건은 본문 표기. 파생 누적·VKOSPI는 리포트 차트 판독 근사. 섹터 등락 이유는 마감 후 확인 가능한 공시·뉴스 기준 3단계 등급 판정. 점선 밑줄 용어에 마우스를 올리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.